

광주시, 광역도로망 126km 늘려 690km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2곳 확장·개설 군공항 이전 전까지 저가항공사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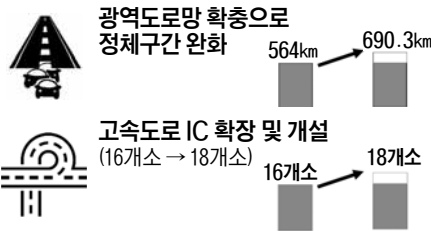
중장기 교통정비 기본계획

광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계획 및 기존 교통관련 계획을 현재 교통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특히 광역도로와 항공,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부터 대중교통 운영체계, 주차난 해소방안 등 교통 관련 모든 계획을 총망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작지 않다. 광주시는 9일 교통수단과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2억여원을 들여 용역에 들어가 최근 완료했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은 126km 늘려 690km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2곳을 확장하거나 개설한다. 특히 광주

공항은 군 공항 이전 전까지는 저가항공사 유치 등 운영 다변화와 함께 이용객이 늘고 있는 제주노선 항공편을 현재 11~12편(1일)에서 14~15편으로 증편하기로 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전국 4대 간선 철도망 중 유일한 단선 구간(광주송정~순천·117km)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광주~대구 내륙철도, 광주~혁신도시·화순 간 광역철도 계획도 반영됐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백운광장 교차로 개선 등 모두 23곳의 도로망 개선사업도 시행된다. 이 경우 내부도로망 평균 통행 속도는 현재 시간당 28.3km에서 31.1km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시내버스는 전면적인 노선체계 개편,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을, 도시철도는 2호선 조기 건설, 택시는 총량제 시행, 승차대 정비, 교통약자 전용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광주시 광역교통 개선방안

□ 광역도로망



□ 항공

제주 노선 증편 등 항공 이용객 불편 해소 (11~12편/일 → 14~15편/일로 증편)

계획이다.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도로 구축(457km), 자전거 거점터미널 시설 보완과 보관함 설치 계획 등도 마련했다. 공영 주차장을 늘려 24곳에 1016면을 추가로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점을 등급별로 지정, 관리하며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261대)와 단속인력(90명)도 늘릴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12조1574억원, 시비 1조 8929억원, 민자 2271억원 등 모두 14조

□ 철도

·일반철도 : 경전선 전철화, 광주~대구 내륙철도
·광역철도 : 광주~공동 혁신도시·광주~화순 광역철도 (총 340.9km 확충으로 호남권 지역의 장거리 교통수요 처리기대)

□ 교통시설

광주송정역사 증축,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및 이용 편의 제공)

275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달렸다는 점에서 두고 볼 여지가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연간 51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대중·녹색교통 활성화로 연간 4만5000t의 이산화탄소(CO₂)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차은택 입에서 무슨말 나올까

檢, 본격 조사 ... 핵심 의혹 소극적 답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 씨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나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선 개인적인 인연이 없거나 자신의 활동과 관련해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잠시 만나 “차씨가 박 대통령과 공식적인 보고 자리에서 봤을 뿐 독대할 적 없다는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 부분은 (차씨)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대답했다.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 역시 전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우 수석과는 모르는사이라고 얘기한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차씨가 최순실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대거 드러난 가운데 최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물음에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만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미래재단의 설립·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일정 역할을 하면서 보좌했다는 측면을 부각하면서 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핵심 의혹에선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에서 잠적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차 감독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에서 웹드라마를 촬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작업 중이었는데 사건이 불거져 머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하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뜻에서 차씨와 협의해 이달 1일 검찰에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차씨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시도한 의혹에는 “차씨가 의혹의 주인공이 된 탓에 업체 직원이나 거래처가 동요했다”며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긴급체포된 차은택 씨가 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선규 문화전당장 “민평, 문화전당과 떼 놓을수 없어”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은 문화전당과 떼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 전당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이 옛 도청 본관 등 5월 항쟁 공간을 아우른 예술공간으로서 문화전당을 주목하고 있다”며 “실제 해외 홍보에서도 광주항쟁 유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5·18 기념재단 등 광주항쟁 단체들이 민평의 예술공간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민평은 옛 도청본관, 경찰청 등 6개 공간으로 이뤄진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월 가운데 하나다. 그는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논란으로 5월 단체와 마찰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위가 11월까지 공식 안을 내놓기로 해 기다리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문을 열 수 없어 기다리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몇 년째 민주평화교류원 문을 못 연다는 이미지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방 전당장은 이어 최근 최순실·차은택이 문화전당을 농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근 박혜자 의원이 주장한 최순실 측 인사들이 문화전당 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확인할 수) 말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정가

김영남 시의원 “시교육청 식중독 관리 미흡”

광주시의회 김영남(민주·서구 3) 의원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초·중·고교 5개 학교에서 2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지만 원인을 밝혀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마다 실시하는 급식실태 점검에서 급식 계약 및 예산운영 부적정, 식재료 검수 및 교직원 급식비 징수 소홀, 급식일지 작성 및 소

출 등의 항목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산 조리와 검수 및 일지 업무를 실시간으로 정보화하는 한편 영양사와 조리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경남 시의원, 김치축제 활성화 대책 시급

광주시의회 주경남(민·서구4)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김치축제가 산업화와 관광화의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광객 유치 등 축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한때 80만명에 달했고 2014년에도 40만명이 다녀간 광주 김치축제 방문객이 작년에는 6만8000명에 그쳤다”면서 “축제 장소를 바꾼 것

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낮춘 큰 이유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매년 15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 대형 행사인데도 수출이나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산업화 사례나 관광 상품화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행주 도의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운영 개선을”

전남도의회 문행주(화순 1) 의원은 9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6개 연구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최근 4년간 예산 규모가 성장했는데도, 임주기업 유치·신규과제 수주·특허 출원 등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행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조직 구조는 1본부 6센터 1실로 이뤄져 있는데, 경영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조직운영으로 각 센터의 연구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혁기자 golee@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5억
학동 / 8층 / 신축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경매 골프연습장

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룸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수익형 빌딩

서구 광천동 / 대지 223평 건물 571평 / 일반상업지역 / 광천동 중심상권 코너 위치

감정가 41억 6천만, 최저가 41억 6천만

가스충전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지

서구 쌍촌동 / 대지 457평 / 2종일반주거지역 / 8m 도로접 / 주위 다가구주택 흔재 지역

감정가 11억 6천만, 최저가 11억 6천만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접 / 해변 전망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상가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매매가 17억

전원주택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3억

숙박시설 부지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가 8억 5천만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매매가 5억 5천만

계곡 산장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매매가 3억 5천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